

 주류업계와 사회적 영향

1 개의 메일

선수단 뉴스레터 <woohyunkim+news@dancingcider.com>

2020년 10월 21일 오전 10:00

받는사람: Company <company@dancingcider.com>

선수단 뉴스레터

#8

주류업계와 사회적 영향

선수단, 안녕하세요! 😊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저번 주에 이어 '기업의 사회적 영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주류업계의 사회적 공헌 활동 사례들을 위주로 정리해 봤어요. 주류업체들 역시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크게 기업형 주류업체와 수제 주류업체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

수제 주류업체의 경우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양조협회에서는 **크래프트 맥주의 특징**으로 '자선활동·기부·자원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명시하기도 했어요. 반면 **대규모의 기업형 주류업체**는 대중을 타깃으로 하기에 특정 커뮤니티에 제한을 두기보다 산업 및 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요.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각 사례를 더 들여다보기로 할까요? 🔍

그럼 오늘도 모두 Happy Hump Day! 🐐

 수제 주류업체

수제맥주 및 사이더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해당 지역의 농산물과 인력을 활용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과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강하죠. 가령 미국의 **Portland Cider Co.**에서는 지역 과수원의 낙과들을 기부받아 사이더를 생산하고, 해당 매출분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제 주류업체의 특징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바로 사회 소외층들에 대한 공헌 활동이에요. 수제 주류업체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주류시장에서 언더독이다 보니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사들에서 확인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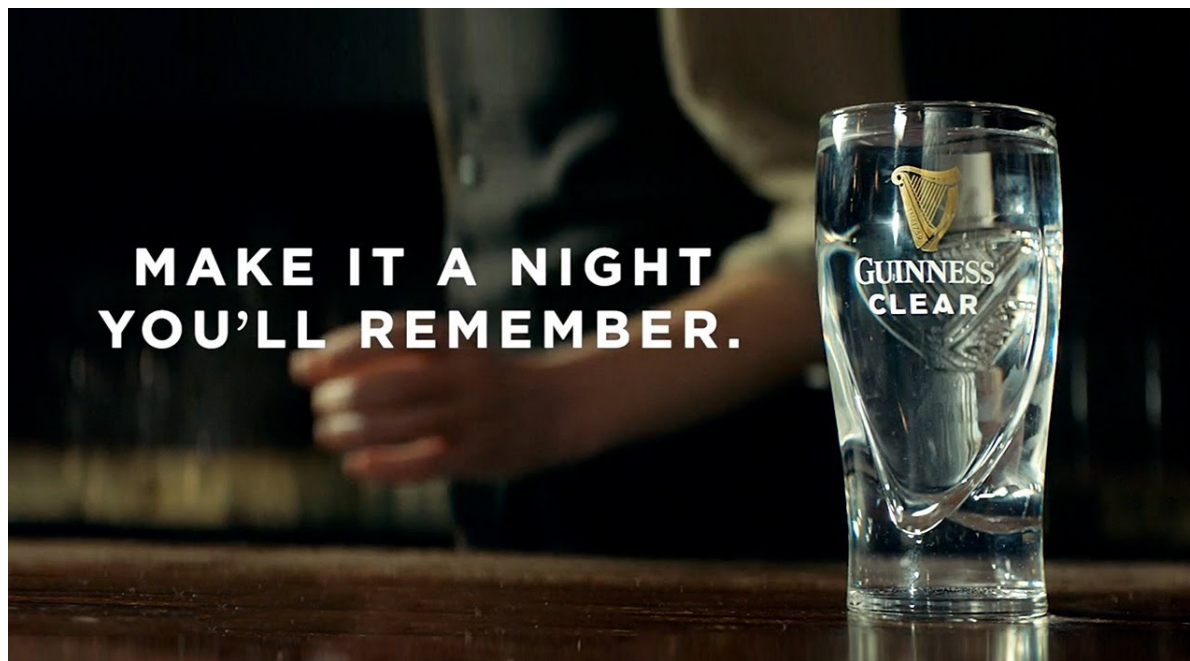


- [더오래]'블랙 이즈 뷰티풀'...양조장이 소외층을 돕는 이유 (중앙일보, 2020-07-02)
- 맥주로 인종 차별을 비판하고 동성애 혐오를 비틀다 (Huffpost, 2018-07-30)
- 국내에 불어오는 핑크 부츠 바람 - 여성 양조사를 위한 핑크부츠 블렌드 홈 프로젝트 (비어포스트, 2020-08-28)
- 5 Craft Cideries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Cider Culture, 2020-10-02)
- Craft Beer, Represent: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diversity in the brewing industry (the Growler, 2020-07-31)
- The Beer Industry Looks for Ways to Help Black Brewers (The New York Times, 2020-08-28)



대규모 주류업체

대규모 주류업체의 경우 타겟 소비자와 규모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 사회공헌 활동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별도로 두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죠. 기업형 주류업체가 주로 집중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건전한 음주문화의 전파, 농업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으로 사회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기네스는 ‘기네스 클리어’라는 캠페인을 통해 과음을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AB인베브는 ‘**Smart Barley**’ 프로그램을 통해 농부들을 위한 스마트팜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들로 확인해 보세요!



- [Editor's Pick] 고정관념을 깨자! - 시대의 흐름을 읽은 하이네켄의 변신은? (매드타임즈, 2020-02-19)
- 오비맥주, '물과 사람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동아일보, 2020-10-13)
- 세계 1위 흑맥주 '기네스'가 투명한 맥주를 내놓은 까닭은? (브랜드브리프, 2019-12-13)
- 오비맥주, '건전음주서 지역나눔까지' 사회공헌 차별화 (비즈니스워치, 2020-04-09)
- Sustainability goals 2025: AB InBev commits to smart agriculture and circular packaging (Food Ingredients, 2018-03-22)
- How a Community-Based Strategy Helped Kirin Create Shared Value (Sustainable Brands, 2016-11-30)

금주의 업계 소식



- 배상면주가 홈술닷컴, 주류업계 첫 당일 배송 서비스 (연합뉴스, 2020-10-19)
 - 디아지오코리아, '여행엔 기네스' 프로모션 (파이낸셜뉴스, 2020-10-16)
 - 롯데칠성 '블루문' 맥주, 브랜드 '굿즈' 고객 나눔 이벤트 개최 (라이센스뉴스, 2020-10-19)
 - 생활맥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부담없는 수제맥주” (세계일보, 2020-10-16)
 - 홈술엔 맥주보다 '와인'?... 올해 유통街 주류 대세는 '와인' (이코노빌, 2020-10-15)
 - 아듀! 옥tober페스트...호텔 별미로 소환하는 여행지 추억 (아시아경제, 2020-10-17)
-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